

두산갤러리 서울은 2020년 5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최윤의 개인전 《마음이 가는 길》을 개최한다. 최윤은 2019년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두산레지던시 뉴욕에 6개월간 입주할 예정이다.

최윤은 통속적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숨겨진 집단적 믿음의 상투성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길거리나 공공장소, 대중문화 사이를 떠도는 평범하고 진부한 이미지들을 포착, 수집, 변종하여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으로 선보였다.

‘마음이 가는 길’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너무나 흔한 표현이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관습적인 생각 때문에, 아마 마음이 가는 길은 한결같고 순수할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가는 길은 때로는 변덕스럽고 세속적이기도 하다. 최윤은 이런 상투적인 관념과 그 이면 사이에서 생겨나는 이상한 감정과 생각들을 쌓아 나간다. 이번 전시 《마음이 가는 길》에서 그는 2017년 개인전 이후로 크고 작은 전시에서 진행해 온 작업들을 ‘게시’와 ‘갱신’이라는 방식으로 다시 불러온다.

사무실 칸막이를 사용해 공공건물처럼 꾸며진 전시장은 벽에 걸려 있는 ‘게시’의 공간과 바닥에 놓여 있는 ‘갱신’의 공간으로 나뉜다. 최윤은 지하철, 관공서, 도서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게시물 속에서 시각적 권력이 내면화되고 장식화되는 면면을 포착한다. 이러한 게시물의 벽 사이로 최윤의 작업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조각들이 스스로를 갱신해가며 몸을 불려나가 사람 크기만큼 커진 ‘척추동물’들이 자리한다. 그리고 전시장 중앙에 자리잡고, 사방으로 수많은 디지털 이미지들을 흘려 보내는 영상 <게시게시게시>(2020)와 사운드 작업 <호러 에로 천박 주문>(2020)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최윤이 다시 한번 전시장 안으로 불러들이는 이미지, 사물들, 영상과 사운드는 언젠가 보고 들었던 것들이다. 때때로 주요하게 작동하는 많은 것들은 눈에 잘 띄지 않거나, 거슬리는 소리, 덧없고 보기 싫은 미감을 가진 것들이 된다. 순수하면서도 변덕스러운 마음처럼, 최윤은 진부함에 묻혀있던 너무나 한국다운 풍경을 갱신하고 게시하면서 우리 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가고 있는 곳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최윤(b.1989)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하였다. 아트선재센터 프로젝트 스페이스(2017, 서울, 한국), 누하동 153번지(2015, 서울, 한국)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2019, 서울, 한국), 아트선재센터(2019, 서울, 한국), 아르코미술관(2019, 서울, 한국), TCAC(2019, 타이페이, 대만), 산수문화(2018, 서울, 한국), 부산비엔날레(2018, 부산, 한국), 광주비엔날레(2018, 광주, 한국), 북서울미술관(2017, 서울, 한국), 국제갤러리(2017, 서울, 한국), 서울시립미술관(2016, 서울, 한국) 외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SEOUL**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길 15  
두산아트센터 1층 03129  
T. 02-708-5050

**NEW YORK**  
533 West 2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 1-212-242-6343(6484)

**RESIDENCY NY**  
548 West 28th Street Suite #231  
New York, NY 10001  
[www.doosangallery.com](http://www.doosangallery.com)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